

남자다운 남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8

남자다운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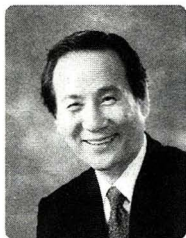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 / 마틴 디 한 2세	6
1. 슈퍼맨	7
2.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	11
1) 남성다운 성품 / 13	
2) 섬기는 자의 리더십 / 20	
3) 영적 평등 / 31	
4) 인격의 견고함 / 41	
3. 피해야 할 극단적인 남성의 모습	51
4.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남자!”	53

하느님이 원하시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 멋진 제목이다. 누군들 남자로 태어나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다운 남자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지 이상적 모델을 전혀 모른다면 목표없는 화살이 어떻게 과녁을

마출 것인가?

대부분 남자들은 그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그냥 살아 나가는 것이지 남자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향해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고 성장시켜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 이상형이 무엇인지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의 참된 모습을 이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어디서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남자는 무엇이며 여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남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참된 남자의 상이 있다면 남자인 우리들이나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룬 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남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글은 모두가 읽고 공부하고 새겨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나 남자들이 참된 남성상을 찾아서 남자다운 남자가 될 때 이 땅에 있는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책자를 또 다시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지금은 과거 언제보다도 남자다운 남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 상 복 목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

남자는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남자인가? 생리학적으로 다르다는 것 말고는 남자가 여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의 가치에 관하여, 즉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남자의 역할에 관하여, 또한 그의 우정과 독신생활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옳은가? 죄는 어떻게 이상적 남성상을 왜곡시켰는가? 이상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오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커트 디 한 목사가 쓴 이 소책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남성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자인해 주신 바대로 완성되어 가는 법을 배우고, 다른 한편 여성 독자들은 삶의 동반자되는 남성을 더 잘 이해하고 격려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

슈퍼맨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설마 슈퍼맨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운의 행성으로부터 탈출하여 지구에 나타난 공상소설 속의 주인공 슈퍼맨은 사람을 닮긴 하였어도 사실 우리와는 아주 다른 존재였습니다. 무진장한 힘이라든지, 하늘을 나르는 재주, 투시력 등 분명 보통 남자와는 다릅니다. 슈퍼맨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인물입

니다. 이 세상 누구도 슈퍼맨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슈퍼맨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상적인 인물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실존하는 남성이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실패합니다. 벽을 투시할 수도 없습니다. 높은 빌딩을 훌쩍 뛰어넘는다든지 심지어 낮은 빌딩이라도 잔걸음으로 넘나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잠재우고 만족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 대하여 높은 이상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이상적 모습을 다 갖추려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한테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남자란 어떻게 생겨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에 관해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이 혼란 속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성적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나? 남자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나?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아버

지들은 모두 야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남자는 여자의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주고 여자한테서 배워야 하나? 하나님 뜻에 맞는 남자도 미인을 좋아하나? 하나님은 남자가 스포츠와 사냥을 즐기고 고급차 타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남자에게도 나아가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대하여 높은 이상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이상적 모습을 다 갖추려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오늘날 남성의 역할이 무너지는 현상은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남자의 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혼돈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 성의 엄청난 남용
- 결혼과 가정의 파탄
- 남성 우월주의와 극단적 여권 신장 운동
- 동성애, 혼음, 매춘
- 에이즈와 성병
- 지도층의 성 추문
- 포르노의 번창
- 성을 주제로 하는 빗나간 록 음악

- 퇴폐를 부추기는 대중 매체
- 여성의 교회 직분 제한에 대한 논쟁
- 전통적 남성 직업 분야에 여성의 진출
- 스포츠 폭력
- 직장에서의 윤리 문제

남성의 역할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남자를 어떻게 도와 주실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2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란?

여러분이 모르는 남자와 여자를 붙잡고 남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 대답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나이의 차이에 따라 그 대답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들은 모두가 일시적인 문화적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초에 남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일러주신 삶의 방식을 배우려면 역시 성경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책자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 하나 짚어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알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오늘의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크게 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남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대답은 매우 어렵게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여 모든 남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다음 네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남자다운 성품
- 섬기는 자의 리더십
- 영적 평등
- 인격의 견고함

남자다운 성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다운 성품 2. 3. 4.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성들을 보면 연약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하무적의 전쟁 영웅으로 나오는 람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남자다운 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터질 듯한 어깨근육을 자랑하는 람보는 아무리 많은 적군이라도 쉽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표상일까요?

남성답다고 하는 뜻은?

아래 가운데 남자다운 성품은 어느 것일까요?

- 자기 몸무게의 역기를 드는 힘
- 기름 때 묻은 손
- 반찬 가리지 않는 좋은 식욕
- 패싸움에서 생긴 흉터들
- 아무 때나 사용하는 굵고 낮은 목소리
- 여자와 어린이를 자기 종처럼 취급

-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야 마는 큰 목소리
- 여자를 성적 노리개로 보는 눈
- 열광적 스포츠 팬
-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음
- 거칠고 대담한 행동

남자답다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아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서는 고작 남자답다는 뜻은 여자답다는 뜻의 반대어로서 남자만이 가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답다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인자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특징들을 함께 결합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먼저 신체적으로 다르게 생겼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 모습만 다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게 생겼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23번째의 염색체에 이르기까지 남녀간에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서, 심리, 지성,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테스토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남자의 신체적 발달과 뇌의 사고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여자에 비교해 볼 때 남자는 대체로 위장이 작은 대신 폐가 큽니다. 적혈

구의 수가 20% 더 많습니다. 근육의 힘은 50% 더 강합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높은 온도에 여자보다 더 견디지 못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낮습니다. 빛에 민감한 반면 소리에는 둔합니다.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어휘력이 뒤지고 근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알레르기를 쉽게 앓고, 더 호전적이고, 성욕이 더 강합니다. 시각에 의한 성적 흥분이 더 쉽게 됩니다. 인간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는 소질이 적습니다. 논리적인 반면에 직관력이 약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안팎으로 다릅니다. 생김새와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최근의 의학 정보에 의하면 남녀간에 언어 구사력과 공간 개념을 인식하는 능력에 차이를 가져다 주는 원인으로서 남녀의 뇌가 해부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성다움이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관하여 아주 강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안팎으로 다릅니다. 생김새와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여기에 이름을 다 붙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20절)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24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창세기 1:27~28; 2:18, 21~24). 여성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담의 남자로서의 존재는 불완전하고 미확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의 남성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고 기능도 서로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남녀는 오직 생식 기능에서만 역할

이 다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남성이란 우월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여자의 적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흐으러지면서 사회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행 가수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처럼 차려입고 동작도 그렇게 합니다. 동성연애의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섞여사는 생활 방식을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남자답다는 표현의 또다른 왜곡된 개념은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포르노가 번창하면서 성적 환상이나 성도착, 성폭력과 같은 함정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남성답다는 것이 가장 원초적 수준에서 성욕과 남성성기를 소유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다움의 원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는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성적 문란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잡혼(출애굽기 20 : 14 ; 레위기 20 : 10 ; 잠언 6 : 24~35 ; 고린도전서 6 : 15~20)과 동성애(레위기 18 : 22 ; 로마서 1 : 26~27)와 음욕(마태복음

5:27~28 ; 골로새서 3:5)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질책을 받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는 이와 같이 거역한 결과에 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인간사회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서 떠난 결과 온갖 잘못된 성적 타락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담의 남성으로서의 존재는 여성이 없이는 불완전하고 미확정이었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고린도전서 7:18). 창세기에서의 본래의 뜻은 한 남

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결혼하여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마태복음 19:12; 고린도전서 7:32~35).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예가 됩니다.

남자다운 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

이 소책자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남자가 남자다운 성품대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섬기는 자의 리더십, 영적 평등, 인격의 견고함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남성의 모델을 제시합니까? 나쁜 사회 현상에 종교가 바른 역할을 하여 남성의 역할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왔습니까? 남성의 역할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의 리더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다운 성품 2. 섬기는 자의 리더십 3. 4.

이번 장은 그 제목 자체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란 말이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섬기면서 동시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 뜻에 의하면 리더십이란 독선적인 것과 다른 뜻이며 섬기는 자도 주인이 시키는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바른 뜻은?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십이란 신뢰감이 있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이해심이 많고, 책임을 지며, 능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며, 권위가 있고, 솔선적이고, 모범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상을 뜻합니다. 리더십이란 모든 결정을 혼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나 교회와 사회의 모든 분

야에서 소위 “보스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이란 앞장서서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자의 바른 뜻은?

성경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는 자기 할 일을 잘 헤아리고, 존경받을 만하고, 자진해서 일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아무 생각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겸손히 섬기며,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남에게 가장 좋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복종하라(21절)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25절)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것과 리더십을 합칠 수 있나?

이것은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배척과 불순종과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빌립보서 2:5~11).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주어진 권위와 능력에 따라 사람을 부릴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흠 많고 목이 굳은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셨지만 그 리더십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아무도 강제로 따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순종을 얻어낸 다음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오늘날 보여 주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에 보는 것은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입니다.

미혼 남자로서: 미혼 남자들은 자신만을 돌볼 뿐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남이 따를 만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디모데전서 4:12~16). 미혼남자의 성품과 안정된 인격과 남을 세워주려는 마음을 보고 처녀들의 마음이 이끌려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린도전서 11:3)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에베소서 5:25)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인도함을 기꺼이 따르기를 바란다면 남편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 아버지는 자식을 훈육할 책임이 있으며(신명기 6:6~9; 에베소서 6:4), 자식에게 필요한 것으로 돌보아야 하며(디모데전서 5:8),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에베소서 6:4; 골로새서 3:21) 대하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자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키우는 것처럼 자신이 맡고 있는 교인들을 잘 인도해야(베드로전서 5:1~4)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 구약의 다니엘은 주님을 위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다니엘 1,6장). 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인정함으로

써 큰 일을 해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왜 남자가 이끌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남자가 더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갈라디아서 3:28)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라고 보아야지 사람들의 억지 주장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리더십이란 우월함을 뜻하고 섬기는 역할이란 열등함을 뜻한다는 고정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동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3)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리더십이란 우월함을 뜻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남자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나타납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다음 남자의 부족한 것을 완성키 위해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를 돕는 배

필로서 창조된 것처럼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맡는 것이
쉽리이므로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됨이란 무슨 뜻인가?

우두머리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합
니다. 이 단어에는 “본래의 것” 또는 “근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
자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풀이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됨같이 남자(아담)가 여
자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머리됨이라는 개념에서 리더십
이나 권위라는 개념은 빼고 이야기했다고는 믿기가 어렵
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고 그
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의 리더가 됨을 설명
하기 위해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에베소서
1:22, 4:15; 5:23; 골로새서 1:18; 2:19)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
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3)**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리더십의 개념은 디모데전서 3장 4,5,12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을 열거하는데 들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이 든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의 머리됨은 인간의 타락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타락의 결과로 생김이 현상을 뒤집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매우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의 개념을 창조의 역사에서 가져왔습니다(고린도전서 11:8,9; 디모데전서 2:13,14). 머리됨이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으로 인해서 참뜻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받을 벌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16)

이 구절에서도 특히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한 대목은 남자가 여자의 삶에 질서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남자가 다스린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부당하게 지배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성서의 문맥에 맞는 듯합니다. 즉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사모하다”라는 말은 “요구하다”, “밀고 나가다”, 혹은 “통치권을 잡으려 하다”의 뜻을 가진 아랍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각각 “사모하다”와 “다스리다”의 뜻을 가진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 및 4장 17절에서 같은 문법적 구조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장에서 가인을 소위 “사모하게” 하고 그릇된 짓을 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통제력을 잃지 않고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3장 16절과 4장 7절에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통제권을 잡으려는 강한 욕망을 뜻한다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 여자에게 남자를 지배하려는 자연에 거슬리는 욕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다시 남자가 리더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폭군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도록 퇴행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아직도 약간의 논쟁은 남아있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다툼의 내력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평화와 조화를 보이는 대신에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남녀가 서로 보완하여 완성하려는 대신에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벌벌 기어야” 하는가?

남자는 언제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앞서 나가고 여자는 멀찌감치 물러 앉거나 먼 발치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직도 간혹 아이들을 대하듯이 여자들에 대해서도 떠들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아직도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보아도 올바른 하나님의 딸들은 이렇게 복종하는 노예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중요하면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일구어 내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다. (잠언 31 : 10~31 ; 사무엘상 25 : 18~44 ; 열왕기하 22 : 14~20 ; 사사기 4 : 1~24 ; 룻기 ; 에스더 ; 누가복음 2 : 36~38 ; 8 : 1~3 ; 로마서 16 : 1~15 ; 빌립보서 4 : 3 ; 디모데후서 1 : 5)

섬기는 자의 자세는 왜 중요한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균형을 잃은 무서운 인간이 됩니다. 섬기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해 내려면 신중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본받을 만한 지도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이렇습니다.

- 오래 참습니다.
- 온유합니다.
- 투기하지 않습니다.
- 자랑하지 않습니다.
- 교만하지 않습니다.
- 무례하지 않습니다.
-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 시기하지 않습니다.
-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 모든 것을 참습니다.
- 모든 것을 믿습니다.
- 모든 것을 바랍니다.
-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남자에게는 그의 아내나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누구든지 그의 리더십에 서로 기꺼이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하면 잃는 것이 많을까 걱정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을 하려면 상처를 입거나 소외당하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접어두고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남자들이여, 한번 도전하십시오

남성으로서의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책임을 가진 동시에 커다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쉬운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고린도전서 12:13; 로마서 8:9) 또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자의 리더십은 당신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그 분을 섬길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을 섬기고 리드하는 것은 주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때에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섬기는 자의 리더십은 결혼 전 데이트 시절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당신은 어떤 리더를 쉽게 따르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믿음과 헌신을 얻어내려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된 여러분에게서 섬기는 자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까? 리더십과 책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적 평등

	<p>하나님이 바라시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다운 성품 2. 섬기는 자의 리더십 3. 영적 평등 4.

“우리는 매일 세 가지 찬양을 올려야 한다. 나를 이방

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무식한 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주다 벤 엘라 랍비, 서기 150년) 일부의 종교성이 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를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이등시민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만이 이러한 편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외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별대우로 희생이 되어 왔습니다.

불평등은 왜 생겼나?

왜 이것이 문제가 되야 하나요? 만인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생각과 행동을 보면 역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히틀러 같은 사람) 유전학적 우수성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지구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종교적 편견이나, 인종차별, 집단학살, 인공유산, 사회계급제도, 부의 독점, 그 밖의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 때문에 생긴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해묵은 남녀의 성 대결입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오해와 논쟁의 원인은 편견과 차별, 성서를 잘못 해석함, 남자와 여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과잉반응을 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여자도 과거 남자가 하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여자도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되었나?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세기 1:27)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처음부터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몇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이 땅을 다스리는 지위에 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또한 여자도 인간의 지배를 받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평등은 동일성을 뜻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창세기 2:18)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같은 성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려면 하와를 배필로 삼아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열등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아담을 도와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의 차이와 남녀 평등은 어떤 관계?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한창일 때 어떤 사람들은 “평등권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란 소수민족이나 다수민족 모두에게 공공서비스의 이용과 고용의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차별대우를 더욱 심화시켜 피부색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식으로 고착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평등권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방법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니다.

“남자는 두 개의 극단 가운데 하나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극단이란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움츠리는 경우와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배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들도 이와 같은 공평하지 못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평등을 강조해도 어떤 여자들은 자신이 이등시민 취급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남자들은 두 개의 극단 가운데 하나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극단이란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움츠리는 경우와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배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대체로 여자를 압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자의 지적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힘이 무시되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우리도 혹시 자신만을 위하여 “평등권의 차별적 적용”을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말하자면, 인종문제와 성별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

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말하자는 것이지 인위적인 남녀차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다운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를 보완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 섬기는 자의 리더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녀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영적으로 취약하다고 보신다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더 열등하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또 남자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도록 만들어졌고 여자보다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더 우월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실제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편견이 지배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은 매우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종교심이 강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종을 거느린 주인들은 종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재산의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영적

으로 열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평등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근본적인, 영적 인도를 받은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여기에 성경적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대하라 :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젊은 여인들을 대하기를 자매에게 하듯 “일절 깨끗함으로”(디모데전서 5:2) 하라고 했습니다. 깨끗치 못한 음란스런 말이나(에베소서 5:3,4) 음행과 간음은 금지 사항입니다.(히브리서 13:4)

이해심으로 대하라 :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여 그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3:7). 이 말씀은 원래 결혼생활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는 기혼이든지 미혼이든지 모든 남자에게 해당됩니다. 남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닮기를 바라서는 안됩니다.

품위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라 :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나이 많은 여인을 대하기를 어머니 모시듯 하라(디모데전서 5:2)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베드로전서 3:7)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똑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로마서 12:10)

베드로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베드로전서 3:7; 에베소서 1:13,18).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처럼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사랑은 남자가 해야 할 모든 행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보이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5~33). 남자는 여자를 대접하기를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마태복음 7:12 ; 22:39)

은사를 찾아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7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성령을 따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서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한 여인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여인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대하라 : “아니,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면 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베소서 5:21)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머리된다는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자도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독재자의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자의 리더십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자의 돕는 역할이 가치면에서 조금도 덜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려면 남자는(기혼, 미혼, 교회의 지도자 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격의 견고함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다운 성품 2. 섬기는 자의 리더십 3. 영적 평등 4. 인격의 견고함

남자가 근육으로 단련된 어깨와 가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 조절도 잘 해야만 합니다. 옛말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격의 견고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지혜를 행사하면서 계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이수할 때 얻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운동 선수를 비유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 : 25, 27). 또 바울은 디모

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디모데전서 4:7)고 하였습니다.

인격의 견고함이란?

우리는 이 말이 어느 정도 경건함 또는 영적 성숙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인격이란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D.L. 무디 선생님은 “인격이란 남이 안 볼 때 행하는 당신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격이란 남에게 보여 주는 가식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말합니다. 당신은 인격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인격이란 당신의 고유한 정체성이요 당신의 여러 가지 성품을 모두 합쳐 놓은 것입니다.

인격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인격의 견고함이라고 함은 강하고 좋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이 견고한 사람은 의로운 일을 끝까지 지키며, “죽대”를 가지고 할 말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좇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인격의 견고함”이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경건함과 영적 성숙함, 올바른 자아상을 나타내는 일관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남자의 삶을 통해 계발코자 하시

는 좋은 성품들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격의 견고함, 어떻게 키우나?

- 자신감—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생기는 자신감(로마서 5:1, 에베소서 1,2)
- 변함없이 꾸준함(에베소서 2:10; 빌립보서 3:16; 디도서 2:12~14; 야고보서 2:14~26)
- 훈련(빌립보서 2:12; 3:12~14; 디모데전서 4:7)
- 올바른 우선 순위(마태복음 6:33; 사무엘상 13:13~14)
- 바른 본을 받음(고린도전서 11:1; 히브리서 12:1~3; 13:7; 베드로전서 2:21)
-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요한일서 2:5)
-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양식으로 삼음(베드로전서 2:2)
-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갈라디아서 5:16~25; 에베소서 5:18; 빌립보서 4:13)
- 바른 선택 - 무슨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행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야고보서 2:14~26)
-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잠언 3:5~6)
- 남으로부터 배움(에베소서 4:7~16)

견고한 인격이 갖고 있는 성품은 어떤 것인가?

남자에게 바람직한 성품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적절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러한 바람직한 성품을 말하였지만 사실은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이것을 읽다보면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성품이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지적 능력이나 교육 정도, 신학 공부, 목회 경험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살펴보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1. 흠이 없음 하나님은 남자가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모든 것을 합쳐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남자는 성경적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한 아내의 남편 결혼한 남자는 아내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남자는 결혼서약을 지키고 순결치 못한 어떠한 행실도 금해야 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른 여인을 자기의 상대로 삼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러한 남자는 정욕에 마음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 27, 28)

3. 절제력 진 게츠는 절제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력있는 남자는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본분을 떠나는 일이 없다. 항상 안정되고 꾸준하며 사고가 명쾌하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삶을 삽니다.

4. 맑은 정신 이 말은 절제력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나 바른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건전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선한 행실 남자는 행실에 있어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해야 합니다.

6. 친절함 희랍어 어원에는 “낮선 이를 사랑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말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기꺼이 돕는 것을 말합니다.

7. 가르칠 능력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남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교만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8. 술에 빠지지 않음 하나님의 사람은 술과 상관없이 없어야 합니다(에베소서 5:18). 오늘날에 와서는 약물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거나 정신을 황폐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9. **폭력을 쓰지 않음** 희랍어의 원래의 뜻은 “휘두르지 않음”입니다. 감정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난폭한 것에는 행동뿐 아니라 말도 포함됩니다.

10. **온유함** 이 말 뜻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남자의 성품은 인자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11. **다투지 않음** 남자는 시빗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문제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됩니다.

12. **돈을 탐내거나 시기하지 않음**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19~21 ; 디모데전서 6:10)

13. **집안을 잘 다스림** 남자는 집안의 머리입니다. 반드시 아내와 자녀와의 사이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남자는 집안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14.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듦** 아버지는 집안에서 존경받는 리더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식을 교육시키고 훈육해야 합니다.

15. **서들지 않음** 아직 믿음이 자라지도 않은 초신자가 일을 맡으면 교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직 충분히 해낼 수 없을 때에는 책임을 맡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16. 이웃에게 증인이 됨 남자는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 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격의 견고하심을 보이셨습니까?

- 동정심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 : 40~42)
- 죄와 위선에 대하여 주저않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 ; 요한복음 8 : 31~59)
- 죄는 미워했으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8 : 1~11)
-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4 : 23 ; 마가복음 14 : 32~42 ; 요한복음 17)
-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4)
- 하나님의 영광을 공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1 : 12~13)
- 사명을 끝까지 좇았습니다. (요한복음 12 : 23~33)
- 겸손하게 이웃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0 : 28 ; 요한복음 13 : 1~17 ; 빌립보서 2 : 1~11)
- 분명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7)
-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 : 21, 누가복음 23 : 34)

성경에 나타난 견고한 인격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에는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키워야 할 바람직한 성품을 모범적으로 보여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노아 노아는 어둠속에 비치는 햇불과도 같았습니다. 부패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노아는 의로운 자로 일어서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창세기 6; 히브리서 11:7)

아브라함 그는 집안의 어른이었으나 아량을 베풀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창세기 13)

요셉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므로 여인의 유혹을 피해 버렸습니다(창세기 39). 형들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았을 때에도 오히려 동정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창세기 42~45)

모세 쾌락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랐습니다.(히브리서 11:24~25)

다윗 사울로부터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왕을 존중했습니다.(사무엘상 24)

다니엘 이방으로 쫓겨난 한 젊은이로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도(다니엘 1:8), 믿음을 감추지도 않았습니까.(6:10~23)

보아스 룯의 신변과 명예를 보호해 주었고 그녀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룯 2~4)

스데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좋은 평판의 사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남자”라고 하였습니다.(사도행전 6:3~5)

바울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살폈으며(고린도전서 9:19~23)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24~27)

바나바 이 신실한 일꾼은 남을 도왔으며(사도행전 4:36; 11:23~24),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에게 두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사도행전 15:36~41)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이여,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인격의 견고함을 계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며칠 동안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3

피해야 할 극단적인 남성의 모습

여러분은 고혈압과 저혈압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원치 않겠지요. 이 두 가지 선택은 정상적이 아닌 두 개의 극단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 성향이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 줍니다.

아래에 보면 남자들이 빠지고 마는 극단의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소책자 전

체의 요점을 살펴보십시오.

플레이 보이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 자기의 성적 욕구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완력형 남자란 모름지기 우람한 근육, 거친 태도, 여자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

마마 보이 어른이 되도록 자기 힘으로 해 본 것이 별로 없다. 엄마가 이 어른 남자의 삶을 지배한다.

취미형 인간 관계보다 취미 생활에 더 탐닉한다.

해파리형 친구나 아내, 아이들, 직장 동료가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게 맡긴다.

장군형 직장 상사나 남편,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로서 항상 지시만 내린다.

스포츠광 운동을 직접하거나 남의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는 데만 열중한다.

동성애자 몸은 남자인데 생각과 행동이 여자를 닮았다.

일 중독자 일 자체가 항상 삶의 제일 관심사이며, 일을 해야 행복하고, 안심이 된다.

근엄형 남자는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신뢰를 갖고 자라왔다.

4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남자!”

하나님께서 바라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과, 매일 매일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다운 성품과, 섬기는 자의 리더십과, 영적 평등과, 인격의 견고함에서 배운 주님의 원리들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지 않으시렵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시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당신이 보통 쓰는 말로 하십시오. 다만 남자로서 잘못 범한 죄를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삶의 기준에 당신이 못 미친다는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남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성이 되기 위해 기꺼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8

남자다운 남자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④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⑥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⑦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⑧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⑨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⑪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받는 사람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122-143075-01-101 한빛: 132-05-108980 국민: 097-01-0199-703
 서울: 16301-1886909 우체국: 012773-0026681 제일: 107-10-109840
 농협: 001-01-214911 조흥: 308-01-137748 외환: 026-13-33750-7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463-070

전화(0342)780-9565~7 FAX (0342)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⑧

『남자다운 남자』

남자는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남자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자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남자들에게는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더 잘 이해하고 격려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남자다운 성품을 지님
-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짐
- 남자와 여자의 영적 평등과 역할의 구분
- 남성으로서의 견고한 인격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을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